

남구 야시장 화제성은 성공,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백운광장 별빛 야시장’·‘군분로 야시장’에 시민 10만여명 방문 상권 매출·인지도 상승했지만 쓰레기·소음 등 고질적 문제 여전

광주시 남구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백운광장 별빛 야시장과 군분로 야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다만 화재 물이에 성공했다는 평가 이면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와 소음 민원, 지속가능성 등의 과제가 남았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별빛 야시장과 군분로 야시장 운영기간 총 10만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군분로 야 시장은 주월동 무등시장 일대에서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5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46개소의 먹거리 부스는 100% 무등시장 내 상점가로 구성하고, 간식거리 판매소 7개소, 체류·판매 부스 11개소, 자매도시 특산품 판매

부스 8개소 등을 마련했다. 딱지치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와 아스팔트 바닥에 분필로 그림이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닥 스케치’, 야시장 운영 기간 동안 20만보를 걷는 챌린지 이벤트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남구는 군분로 야시장 기간 동안 5만여명이 방문하면서 인근 상권의 단기 매출 및 군분로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무등시장 200~300%, 군분로 상점이 30~50% 매출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군분로 야시장은 앞선 4월부터 7월까지 백운광

장 스트리트푸드존 일대에서 열렸던 ‘백운광장 별빛야시장’을 기반으로 개최됐다. 백운광장 별빛야시장은 스트리트푸드존 등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구와 상인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월 2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스트리트푸드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져 점포 매출이 300~500% 향상됐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8월부터는 상인회 주관의 민간주도로 바뀌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야시장이 개최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야시장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숨통을 틔워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등시장 한 분석직 직원 김금순(여·63)씨는 “물가는 끝없이 치솟는 가운데 손님은 갈수록 줄었는데, 야시장 덕분에 사람들이 북적이니 장사하는 맛이 난다”고 말했다.

남구는 앞으로도 야시장을 주력 관광상품으로 개

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남은 과제로 산적해있다.

군분로 야시장에 방문한 적 있다는 심민영(여·28)씨는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좋은 점은 장점이지만, 재방문 의사는 없다”며 “특색 있는 먹거리나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막걸리 마시고 노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해 멀리서 관광객들이 찾아올지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주차, 소음 민원 역시 고질적인 숙제다. 남구에 따르면 야시장 개최 시기 매일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두 야시장 모두 주력가인근 도로를 통제하는데다 저녁시간 무대 공연이 진행되다보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월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야시장을 방문한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을 차를 댈 곳이 없다. 게다가 도로를 통제하니 주민들은 매번 뺄 뻔

아가야 해 불편하다”며 “다음에 야시장을 개최할 때는 주민 동의를 모두 구하든가 구역을 축소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전문가들은 남구가 야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거주민과의 공존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야시장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면 상인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청년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동네 행사’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최근 관광 트렌드는 ‘생활 관광’으로 관광객들도 해당 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보고 싶어한다. 떠들썩한 행사가 아니라도 지역 주민들의 작은 참여가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동구,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AI 디지털 부문 대상 수상

구도심 맞춤형 생태계 전환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지원’ 사업

광주시 동구가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27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콘텐츠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지방자치 TV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시상 분야는 AI·디지털,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이며 심사 기준은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 가능성, 경제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동구는 구도심 맞춤형 기반 사업을 통한 생태계 전환을 담은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건강증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특히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등과 협업을 통해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빅데이터와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구도심의 새로운 성장 모형을 제시한 점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동구는 향후 이 사업을 바탕으로 동구만의 AI 헬스케어 스마트빌리지를 조성하고 건강관리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지원 생태계 또한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동구가 그간 추진해 온 AI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고 말했다.



어린이들 농작물 체험 ‘상추 주세요’
광주시 동구 내남동에 위치한 도시농업복합단지에서 최근 진행된 ‘농작물 수확·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바라보고 있다. 도시농업복합단지는 지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시 동구 내남동에 위치한 도시농업복합단지에서 최근 진행된 ‘농작물 수확·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텃밭에서 자란 상추를 바라보고 있다. 도시농업복합단지는 지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됐다.
<광주시 동구 제공>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통해 광산구 부족한 재정 확충해야”

민주당 김영선 광산구의원 주장 과오납 세금 수정신고 환급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광산구의원(수완동·하남동·임곡동·사진)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광주시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광산구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 납부 후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 요청하

는 절차로, 국제기본법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진행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자체도 납부 세액 계산 과정에서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에 경정청구 할 사항이 발생한다”며 “부가가치세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아 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경정청구의 법적 신고 기한은 5년으로 제때 신청하는 것은 재정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이자 업무”라면서 “실사례로 광주 남구 12억

6000만 원, 나주시 10억 원, 경남 양산시 37억 원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재정을 확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산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3~2017년 5년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1억 7000여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2017년도 이후 7년 동안 한 번도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추진하더라도 2018~2019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경정청구 기회 자체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 지난 5년간이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실시하고, 광산구 회계 관리 규정에 경정청구를 2년마다 1회씩 정기 시행하도록 시스템화해 제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서구, 탄소중립실천 ‘최우수’...인센티브 2500만원 확보

광주시 서구가 광주에서 실시한 ‘2024년 탄소중립 실천사업 평가’에서 5개 자치구 중 최우수로 선정돼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서구는 평가 항목 중 온도낮추기 우수아파트 신청 달성률, 참여자 개인정보 현행화율, 홍보실적 등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서구 그린리더협의체’와 함께 공동 주택 및 상가를 직접 방문하고 안내 행사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및 현장접수 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이끌고 지구의

날, 자원순환의 날 등을 기념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도 진행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대비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이 600세대 이상 증가해 총 7만6711세대가 가입하며 제도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는 것이 서구의 설명이다.

서구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우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LED 조명 교체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